

미스코리아 선발 부정 계기, “미인대회 폐지” 목소리 높아졌다



미스코리아가 돈거래로 결정돼 왔음이 밝혀지자 미인대회 필요성에 회의를 제기했던 여성들은 ‘얕던 이를 빼낸’ 듯이 통쾌한 표정. 그동안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풍토에 거부감을 느껴 왔던 여성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미인대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미스코리아 선발 부정과 관련해서 서울지검 특수 2부에 구속된 사람은 미스코리아 사업을 총괄하던 한국일보사 김중기 상무와 ‘미스코리아의 대모’로 불리던 마샬미용실 대표 하중순 씨. 93년 미스 엘칸토 윤모 양의 어머니 민병애 씨, 90년 미스 진 서모 양의 어머니 김정자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김중기 한국일보 전 상무는 참가후보 가족과 미용실 대표 등으로부터 90, 92, 93년에

모두 9천만원을 받은 혐의, 하중순 원장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네 준 혐의다.

이번 사건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한국 최고의 미인’이라는 허영을 상품으로 내건 장사판에 지나지 않았음을 백일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90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서정민 양은 당선되기 전에 김 전상무에게 3천만원을 주었다고 한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중고 르망 승용차까지 팔고 전세돈까지 빼내 1천5백만원을 마련한 서정민 양은 나머지 부족분 1천5백만원은 당선되면 상금을 받아 갚기로 하고 돈을 꾸어 김 전상무에게 약속한 돈을 주었다고 한다.

구속된 김 전상무는 26년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사업을 총괄해 왔고 미용업계는 김 씨에게 연줄을 대며 미스코리아를 만들어낸 업소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가난한 집 딸 서정민 양이 전세돈까지 빼가며 로비자금을 마련해야 했다는 사실로 봐서도 얼마나 미인대회가 돈거래로 물들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한 미녀들 중 상당수가 ‘성형미인’이라니 역대 미스코리아는 타고난 미인이라기 보다는 ‘제조된’ 미인을 뽑는 자리였다고 할 만하다.

그동안 미스코리아는 보통 여성들에게는 ‘예뻐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 준 미의 모델이었고 당선자 자신들에게는 여자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거나 출세가 보장되는 발판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본질은 ‘미용 산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황금알’을 주워담는 돈바구니였다는 것이다.

여성 소비문화의 주범이었다

이보희/한국여성노동자회 부회장

미스코리아 대회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보통여성, 생산직 여성노동자에게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심어주고 외모로 인한 패배의식을 심어준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여성들에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행사였던 것이다. 능력보다는 자신의 몸을 내세워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일부여성들의 행태는 여성문화를 소비적으로 이끌었던 주범이다. 이 기회에 폐지시키자.

시대에 맞는 미의 기준 있어야

이승정/YMCA 간부연 간사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미 잃고 있는 미인대회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미세스코리아를 뽑는 등 여성 상품화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외적인 미의 가치가 여성의 상황을 왜곡시켜 왔음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되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상업문화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 미의 가치(34-24-34라는 식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대에 맞는 미의 기준

한마

이 새로이 제인식전환이 풀

관련자

도의적 초

김효림/35·주

‘돈이면 다 세상이 돌아가 다시 확인했다 없는 일이다. 선발대회가 조장한다며 폐의 반대를 동 돈으로 미인 스스로 인간상 무엇인가. 미스를 반대하지는 밝혀진 이상 1 주최측 언론사 위원 등 부정 대한 도의적 물어야 한다. 있다고는 생

‘여성 가치 억지논리

권수현/한국여

미스코리아 연관돼 있다 오래된 얘기도 구체적으로 밝 뿐이다. 오래전 는 미스코리아 며 폐지를 주 리아 뿐 아니 내건 작은 미 상품화 하는 ‘여성은 예뻐 가치는 외모. 식의 억지논리